

광주교육정보원발 'n차 감염' 긴장

사흘새 일가족 4명 포함 7명 줄줄이 감염 노마스크로 식당·카페·영화관 등지 방문 광주시 "큰 불 잡혔지만...개개인이 백신"

광주교육연구정보원(發) 코로나 19 'n차 감염'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흘새 7명이 확진된 가운데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을 방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다.

13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속 60대 남성 공무원(계약직) A씨가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2일까지 사흘새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오후 동료인 50대 공무원 여성 B씨가 확진됐고, 이어 11일에는 B씨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466번, B씨는 470번, B씨의 남편은 473번, 두 아들은 474번과 475번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어 주말인 12일에는 474번의 지인인 20대 남성 2명이 각각 광주지역 476번, 478번 확진자로 판정받

았다. 현재까지 교육정보원 감염자 466번과 470번 모두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바이러스 침투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누가 먼저 감염된 건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2명 이외에 교육정보원 내 추가 감염은 다행히 없는 상태다. 교육청노동조합 사무실과 학교안전공제회,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진로상담실, 노동정책과 안전총괄과, 혁신학교지원센터 등이 입주한 가운데 상주인력 140여 명에 대한 긴급 역학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n차 감염으로, 이미 3차 감염까지 진행된데다 노마스크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파악과 감염 여부에 대한 입체적 역학조사가 긴장 속에 진행 중이다.

실제 확진자 동선조사 결과, 474번의 경우 8일 오후 남구 모 식당, 9일



오후 중장으로 모 식당과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영화관 등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했고, 475번도 지난 10일 오후 노마스크로 동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475번과 접촉한 뒤 감염된 476번과 478번도 9일부터 11일 사이에 동구지역 음식점과 학교 독서실, 식당, 서구모 피부관리실, 국밥집, 남구 음식점, 북구 모 식당 등 10여곳을 마스크 착용없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복수의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29명에 달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11일에는 3번째 사망자까지 나왔다.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기간 중 무증상 감염자 비율도 54.2%에 이르고 있다.

방역 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들이다.

시 방역당국이 이날 '준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다음주 초까지 이어져 감염 확산 진정세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준 3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한선 일부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큰 불은 잡혔지만 도처에서 잔불들이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 무책임, 이기주의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고통을 짧게 끝내고, 하루 빨리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백신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호기자

미용실 여주인 상대 강도...항소심도 징역형

미용실 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기간 및 준수사항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께 복면을 쓰고 광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여)씨를 흉기로 위협,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또 같은 날 빼앗은 B씨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 285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채무 시달리다' 마사지 업소 강도...항소 기각

마사지 업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태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재판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47분께 광주 한 마사지 업소에 침입, '돈을 내놓아라. 계산대 금고를 열라'며 흉기로 40대 여주인 B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목욕탕서 부항 시술 세신사 벌금 300만 원

목욕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세신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목욕탕 세신사 A(61)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광주 모 목욕탕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부항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도와 기간, 수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손님을 출입시킨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석 차례상 오를 '나주배 물량' 40% 감소...가격도 쟁쟁

이상저온·긴 장마·연이은 태풍 영향...출하물량 급감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출하작업이 한창인 농협APC 선과장을 방문해 나주배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 지역에서 추석을 앞두고 나주배 출하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농가들은 수확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 차례상에 오를 필수 성수품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물고 온

불황에 작황 저조로 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약간의 기대감은 남아

있다. 13일 나주시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출하될 나주배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 줄어든 1만4000t 내외로 추산됐다.

출하량 감소는 올봄 개화기 저온으로 대규모 작과 불량 피해를 본데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낙과 피해까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작황 저조에서 비롯된 출하물량 감소는 결국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추석 차례상 성수품으로 가장 많이 출하되는 나주배 품종은 전체 배 과수 면적(1943ha)의 83.6%(1624ha)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신고배다.

최근 신고배 공판장 도매가격은 15kg 기준 특품 한 상자가 지난해 대비 1만원 이상 오른 5만원 대를 상회해 소매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매인 A씨는 "신고배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공판이 물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가장 많이 팔리는 7.5kg들이 신고배 상품 가격도 경매 가격이 매일 다르지만 지난해 대비 평균 20%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 노안면의 배 농가 강모(50)씨는 "추석 전에 신고배 판매를 위해 공판도 하고 자체적으로 택배 판매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불황 탓인지 지난해 주문했던 고객들의 재주문은 끊긴 상태"라며 "여기에 배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답답지 않은 않다"고 하소연했다.

농가들의 근심이 커져 나주시도 '나주배 명절 선물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매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